



# 알립니다.

## 1. 환경운동 차량 구입 모금 "십시일반"

(목표액 : 250만원) 참여요망 - 현재 10,196,600 원 돌파



문경대 정비학 김준태 이문석 조원익 장대홍 윤재삼 정희선 김태성 김경원 장희호 박영미 이경재 장병기 박근호 성태관 조권태 최중기 정선국 이재식 성희영 유광수 양광진 박형근 홍순근 박창서 신성훈 김상원 김희중 박경호 이현준 박성표 이득삼 김경일 진성민 황명선 공영삼 이복기 이상훈 오동민 권인홍 황성훈 정길호 박현숙 오예란 진수길 이영식 오준목 김경민 전선숙 고일현 문대석 류종구 김동호 우형정 김병철 박성훈 김태현 김원근 안상희 배선주 설동태 나승희 김태희 오원희 최준수 강지현 한해광 나산주 김기성 현상훈 현상국 함께하는연호교회 임완규 담일락 사성도 부활절 감사헌금 신형운 이선형 장흥호 김혜진 재영숙 여수어중환경교육강사비베버바 회패반 모금 306,600원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0년도에 회비를 적립해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여 2012년 현재까지 12년 동안 줄곧 이 차량을 운행해 왔습니다. 스타렉스 차량은 환경운동의 현장에서, 지역의 시민사회운동의 현장에서 필요한 발이 되었습니다. 광우병 반대 촛불현장, 4대강, 새만금 매립반대, 핵발전소 반대, 비리정치인 퇴출, 친환경무상급식, 에너지조례, 노무현대통령 탄핵반대 집회, 청소년 환경교육,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안전사고 대책, 해양환경보전운동, 시민 도서 생태기행, 폐선부지 푸른 길 운동본부 등과 같은 대한민국과 여수지역의 현안에 가장 빠르게 먼저 참여할 수 있었던 기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듯이 이제 저희와 동고동락했던 스타렉스가 노후화되어 안전상과 환경상의 이유로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유지비용과 활동을 위해서는 회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저희의 입장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신규 차량구입 모금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주위에는 환경 운동을 하면서 대기오염과 자원고갈 등 환경운동과 역행하는 차량을 왜 구입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면든지 반(反)환경 기업에서 폐수를 방류했다든지 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또한 푸름이 어린이 생태 탐사단과 답사기행의 환경교육을 위해서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차량을 구입하는데 도와주세요.

- [참여방법]
- \* 기간 : 2012.3.12~9.31
  - \* 모금액목표 : 2500만원
  - 1) 개인 1구좌 10만원 일시불, 약정
  - 2) cms 1구좌 1월 1만원 약정(10개월)
  - 3) 기타 후원금 가능.
  - 4) 입금계좌 : 농협 629-01-236285, 여수환경운동연합

## 2. Hot-event 2012 하반기 회원프로그램 안내

매주 화요일 저녁은 회원의 날(환경 공부방의 날)입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의 자기개발의 도움과 친교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2012년 7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회원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소에도 외국어나 환경강좌, 환경도서모임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외국어를 전혀 못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두려우신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환경 도서, 영화에 관심 있는 분,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그냥 회원이 좋아서 친교 하고 싶은 모든 분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친교 합시다.

- 대 상 : 성인, 초등학생, 중고생 모두 가능(단, 회원이어야 합니다.)
- 외국어 수다모임 : 일본어, 중국어 기초 회화반
- 환경강좌 수다모임 : 과학이야기, 인문학강좌, 녹색평론독자모임, 생태교실, 환경제테크, 회원경매
- 영화 수다모임 : 영화로 보는 환경코너
- 환경 역사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 장 소 : 사무실
- 금 액 : 무료
- 본 강좌의 책임자는 해당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환경연합 회원님들과 실무자입니다.
- 시 간 : 18:00 - 21:00 : 각 모임별 공부 및 체험 21:00 - 22:00 : 회원 친교
- 신 청 : 2012년 7월 1일 ~7월 17일까지, 추후 계속
- 첫모임 : 7월 17일(화) 18:00, 사무실 (첫 모임에서 진행방향도 함께 논의해요^^)

- ★회원님의 재능기부를 받습니다.
  - 재능기부: 외국어, 장기, 레크레이션, 취미 등 회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다른 회원님들에게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 회원경매: 회원님이 평소 아끼시는 귀한 물건을 회원님들에게 경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회원경매에 참여하실 회원님들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오시면 됩니다. 또한 경매 물건도 후원받습니다.

# 이모저모



## '자연의 뱀' 개도기행 다녀왔어요~

6월 9일 아침 10시 시점에서 모여 화양면 원포에 있는 당산나무와 오수정(정지)을 둘러보고 화양면 백야산악장 여객선에서 배를 타고 개도로 떠났습니다.

모전마을에서 내려서 삼갈 곁에 마을로만 앞에 되어갈 경 지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에 한 번 붙은 엉덩이는 도무지 떨어지지 않더군요. 하여 갈 겸 앉았던 자리에서 지리 퍼고 짐짐을 바른 먹었습니다.

여기서 개도에 유명하다는 막걸리 맛을 안 볼 수가 없죠~

점심식사 때 막걸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미경님이 준비해오신 파전과함께요~ < 왜 사람들이 개도막걸리가 맛있다는 말을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알았습니다. 아삭도 입에 감칠맛이 도는군요~

식사를 마친후 하고 목고너로 향하는 도중 열치 않는 만지를 발견했습니다. 열치를 넣고 삶고 말리는 과정을 일평도 채안 되는 공간에서 다 할 수 있구나 신기했습니다. 술이 가열되는 원리와 물이 빠지는 구조를 보니 어민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고너로 가는 길은 수풀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밀림을 헤집히는 듯했습니다만 바다가 보일 순간~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모두 바다에서 양옆에서 바로 해수욕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 친구들은 버려진 냉장고로 배를 만들어 타고 수영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더 많이 걸어야 하는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행 참가자들의 만류로 수목고너에서 자유시간을 보내다 사 먹었으므로 나와게도 잡고 고동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오는 배를 타고 백야도 온다시 나왔습니다.

이번 기행은 푸짐하게 먹고 살짝(?)걸고 슬렁슬렁 여유를 즐겼답니다.

<푸름이어린이생태탐사단>

## 6월 23일 용기공원 다녀왔어요~

용기공원에 모인 우리 푸름이들...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였습니다.



나뭇잎 맛을 보고 있는 현준이



애린이 손에 든 저것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수집한 곤충을 보고 있네요



선택한 '더어카드'와 어울리는 시물 찾아오기 놀이를 했어요. 친구, 즐거움, 용기공원, 행복, 희망, 지구, 가족, 사랑스런... 푸름이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이 모여 있네요.



물통에 들어있는 물이 쏟아지지 않게 모두를 전을 붙잡고 있네요.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손을 놓아 버린다면?

우리 사는 지구에서 한 종이 멸종된다면... 생태계는 점점 무너지겠죠? 그 생태계의 끝에는 어떤 종이 있을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생태놀이였습니다. 이번 푸름이생태탐사단에 강의해주신 김혜진 · 하나미 숲해설가 님들 감사합니다.

## 지역정책 질의서 답변결과 발표

- 여수연대회의, 22일(금) 오후 발표
- 시의회 의장 후보등록 : 서완석 박정채 의원
- 부의장 후보등록 : 최대식 김순빈 의원
- '상임위 인터넷 생중계 예산편성', '여수산단 확장'에 입장 달라

여수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후보등록한 의원들(의장 후보등록 : 서완석 박정채 의원, 부의장 후보등록 : 최대식, 김순빈 의원)이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인터넷 생중계 예산편성에 대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완석 의원과 최대식 의원은 "2012년 예산편성을 해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박정채 의원은 "2013년 예산편성 후 생중계 추진"을, 김순빈 의원은 "시기 상조"라고 답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인터넷 생중계 예산편성은 시(집행부)의 의안(조례안, 정책의견 청취)과 예산안(본예산, 추경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몇 년전부터 지역단체들이 도입을 촉구해왔다.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이하 여수연대회의)는 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최근 후보들에게 지역정책 질의서를! 보낸 뒤 취합해 22일(금) 오후! 답변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석탄 화력발전소와 여수산단 확장에 대해 서완석, 김순빈 의원은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고 답했고, 박정채 의원은 "환경오염 기준치를 강화하고 적합 업체만 유치"를, 최대식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단 확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여수시가 국제 해양레저스포츠 수도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보이는 '세계4대 미항여수'에 대해 후보 4명은 "박람회 사회활용방안 마련, 신행 대체항만 부두 건설 등 현안사업 해결이 우선이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탈핵 정치인 선언 동참 및 탈핵 지자체 도시 선언', '광양만권 대기해양환경개선 및 대기오염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내실화'에 대해 후보들은 "찬성한다"(적극 노력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수 연대회의는 최근 의회에 보낸 별도의 의견서에서 "선거 전에 의회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후보들은 출마이유, 의회 쇄신방안 등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22일(금) 오후 10시 현재 구체적인 답변을 않고 있다.

여수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정희선, 사무국장 김태성

## 에너지 시민연대 워크숍을 다녀와서



해안가의 풍력발전단지



날개길이란 30M인 풍력발전기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제주에서 배운다'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주도 재생가능에너지 현황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풍력발전을 비롯해서 지하공기활용 시설, 태양광발전, 바이오가스 시설을 두루 둘러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바람이 많은 제주도에서의 단연 으뜸인 재생에너지는 바로 '풍력 에너지'였습니다. 제주도의 신재생 에너지생산량은 제주도의 전체 에너지생산량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풍력에너지생산량은 신재생 에너지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제주도에 있는 9개의 운전중인 풍력발전소 중 행원풍력단지와 가시리 풍력발전소와 추진중인 2곳 중 가파도 풍력발전 조성단지도 방문했는데, 풍력발전소의 위험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풍력발전소의 기본 높이는 47M라고 합니다. 소방차가 30M까지 밖에 못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친환경 이라는 구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니 아찔합니다. 블레이드(선동기날개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의 회전때 따른소음, 야간 조명을 따른 빛 공해, 풍력발전기 및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경관훼손, 겨울철 낙빙으로 인한 피해우려, 블레이드 및 타워(기둥)에 의한 조류 충돌 피해, 저주파로 인한 악영향 등 풍력발전도 많은 피해가 있더군요. 풍력발전의 위치선정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실제로 첫 날 묵었던 숙소에서 새벽 1시경 1KM 떨어진 가시리 풍력발전소를 바라보니 조영이 2초당 1번씩 깜빡거리는 데 너무 밝게 빛나고 있어서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 제주도의 공기가 워낙 깨끗하다 보니 다른 곳에서 보는 것보다 더 밝게 느껴질 것이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바로 옆에 공군기지가 있어서 비행기를 위해 야간에 조명을 밝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낮에는 들리지 않았던 블레이드의 소음이 저녁에는 강하게 들렸습니다. 풍력발전의 다른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던 기회였습니다. 풍력발전의 환경적 문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설비비용의 불균형 문제도 알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업의 설비비용은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행원풍력발전소의 설비비용을 보다 10%이상 높다는 사실은 풍력발전의 환경문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제주도민들이 피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풍력발전소는 이익금의 10%를 환원하는데 (특히)민간기업은 풍력발전단지의 토지 임대료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지원법'에 따른 정당한 지원금마저 기업의 선성성 혜택처럼 건네고 있습니다.



가파도에 조성중인 풍력발전기

지하공기를 활용한 농업이야기와 돼지분뇨를 이용해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이야기도 해야 하고 우리 여수지역에서는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하는데 글이 길어졌습니다. '기후보호 시범도시'를 표방하는 여수시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곳곳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일축될 것 같습니다. 쓸쓸한 마우리로 글을 마치며 많은 염무중에도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게 배려해주신 국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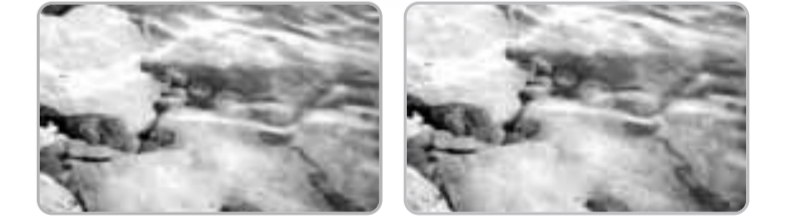


풍력발전기 타워 밑에서

2012년 6월 25일 정보취활동가 드림

##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요즘 바다의 수온상승을 가장 민감하게 알수있는 게 해파리 개체수가 많아 지는 것이니 가막만(소호동, 웅천동) 일대는해파리 종류만 봐도 어마어마한 양을 확인할 수 있으니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물 반 해파리 반'이라는 말이 딱 맞을듯하다. 수온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요즘 과연 해양의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그 해답을알고 있는지???



6월 12일 웅천 선착장

##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여러 곤충들의 번식 형태중 특이한 거위벌레를 소개합니다. 암컷 거위벌레들은 요즘 번식을 위해 한창 바쁘게 움직입니다. 애벌레의 먹이 식물인 참나무, 싸리나무 등의 잎을 이용하지요.



거위벌레 성충

자신의 몇 배에서 몇 십 배나 되는 잎 끝에 작디작은 노오란 알을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자도 없는암컷은 다리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잎을 점습니다. 그 이유는 잎이 끝에서부터 시들어가니 앞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시간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거위벌레 유충

요 작디작은 녀석들이 이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작고 포근한 초록의 요람 속에서는 새 생명이 꿈을 꾸고 있지 않을까요!!